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주간회의

(9월 25일 17:00 원장실)

* 전라북도 주요주간행사관련

- 연구원 주요 주간행사 홍보 차질 없도록(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 혁신도시 산학연관 연계발전방안 토론회, 전북 전남발전연구원 연구교류 협약식 및 RHRD센터 공동심포지엄, 3차 여성정책포럼 등)

* 연구원 운영관련

- 국책사업 시군 순회간담회 차질 없도록 진행
- 한중학술교류포럼 일정확정(11/11~11/15):전북도와 긴밀한 업무협조
- 연구원 C I시안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
- 10월중 연구원 추계체육대회 준비
- 수시과제, 정책과제 점검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후 연구수행
전주 게임엑스포(이동기박사), 새만금내부개발계획 국제현상공모안(박형창박사) 등
- 전문가(연구원) 대외활동시 내부결재 후 시행
- 연구원 개편방안
(두바이프로젝트 구상, 국내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개편방안 모색 아이디어 제출)
- 전라감영공사로 인한 주차 공간 확보 중장기 대책마련 지시

연구과제

* 과학기술자문위원 생물분과 회의

9월 18일(16:30) 본원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생물산업소위원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물산업소위원회의 광용근, 송재준, 이은미, 최재용위원 및 본원의 김진석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생물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일정을 협의하였다.

*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지정 기본계획” 보고회

9월19일(10:00) 김제시청에서 김제시장 및 지역혁신협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탁과제인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 특구 지정기본계획”(연구책임 이승형연구위원)에 대한 최종보고 및 설명회를 가졌다.

전북 미래를 밝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10.20)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2008대형국책사업 발굴 시군 간담회(21-22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시군	일자	사업명	참석자	
			연구원	시군
전주시	9.21 (목)	신재생에너지 RDCB 구축사업	원장 안완기 김진석 나상균 최영희 이성재	전라북도 2명 : 최훈 기획관, 기획담당 전주시 17명 : 안세경 부시장, 관련 실·국장 및 담당, 전주시 혁신위원
		진공기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주 제1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한옥 체험·체류단지 조성사업		
익산시	9.22 (금)	백제 호반도로 개설	원장 안완기 이창현 이승형 이동기 이성재	전라북도 2명 : 김인태 정책기획관 담당, 기획담당 익산시 17명 : 민봉한 부시장, 관련 실·국장 및 담당, 익산시 혁신위원
		황등호 복원		
		다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		
		백제왕궁터 복원		
정읍시	9.22 (금)	내장산 관광랜드 조성	원장 안완기 박형창 나상균 이동기 김보국 최영희 이성재	전라북도 2명 : 김인태 정책기획관 담당, 기획담당 정읍시 17명 : 진춘섭 부시장, 관련 실·국장 및 담당, 정읍시 혁신위원
		제2영화종합촬영소 및 HD지원센터 건립		
		국립 청소년수련원 건립		
		첨단 방사선 의료센터 건립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정비 및 교통문제 개선		

***동부권 균형발전사업 중간보고회**

9월 19일(14:00)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부권 개발계획 중간보고회에서 이창현 연구위원이 안완기, 이동기, 이승형, 박형창, 조경옥 연구위원 등과 함께 산림녹지, 물류기반, 도로부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부안영상교육기관 설립 타당성분석” 연구 중간발표회**

9월 19일(화) 부안군청에서 “부안영상교육기관 설립타당성분석”의 중간발표회가 열렸다(연구책임 나상균연구위원). 유영렬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하여 부안군청의 실·과장 관계자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최종보고회의 일정을 조정했다.

***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

9월 22일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계약하여 수행중인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조사’(수탁)와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 및 김진규(신한에너지니어링), 이창현 연구위원, 이진영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실시하였다.

› 주간회의

› 연구과제

› **등정**

› 연구원 소식

› 게시판

› 자유발언대

등 정

*원 장

- 9월 18일(07:00) 레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전주지식경영포럼에 참석.
- 9월 19일(11:00) 한국집에서 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5차 문화포럼 참석.
- 9월 21일(15:00)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국토포럼에 참석.

*전정희 소장

- 9월 20일 금향정에서 도내 여성단체 임원들과 간담회.
- 9월 21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주최로 열린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김진석 연구위원

- 9월 22일 전북지역의 IT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박형창 연구위원

- 9월 21일(14:30) 전북환경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새만금사업 완공과 전북의 경제발전 방안"이라는 포럼에 참석하여 "친환경적 새만금개발방안"에 대하여 발표.

*이강진 연구위원

- 9월 20일(14:00) 전북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글로벌인재 양성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재가 희망이란 주제로 전북이 먹고 살길을 찾는 기본적인 기반을 인재에서 찾자는 내용의 기초발제. [발제 내용 보기](#)

*이창현 연구위원

- 9월 21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익산배산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승인 외 3건에 대한 심의 및 안건 1건에 대해 자문.

*조경옥 연구위원, 이윤애 연구원

- 9월 21일(14:00)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주최로 열린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김태준 박사

- 9월 21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Real Time Goverment, Real Time GIS 세미나 참석.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연구원 소식

* 위촉연구원 채용면접

-9월 18일(14:00) 회의실에서 위촉연구원(교통계획/사회복지 분야) 1차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

언론보도

* 젊은 인재 고향 등진다 (전북도민일보 9/21)

자유발언대

* 갈등에서 소통으로 - 이동기 연구위원

게시판

* 「정읍시 새로운 시책 및 신규사업 발굴」 현상공모

**「정읍시 새로운 시책 및 신규사업발굴」
현상공모**

가. 응모기간, 제안서 및 응모 방법
 ○ 기간 : 2006년 9월 20일 - 10월 6일 18:00까지
 ○ 교부·접수처 : 전북발전연구원
 정읍시신규사업발굴연구팀
 ○ 사업시행기관 : (개)전북발전연구원

나. 응모자격
 ○ 정읍 및 전북도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 기관 및 단체

[자세히 보기](#)

* 혁신도시 산학연관 연계 발전방안 관련 최종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일 시: 2006. 9. 26(화) 15:00~17:00(2시간)
- 장 소: 전북 도청 중회의실 1
- 토론자: 8명
 -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도시계획(민관학공동위원회 위원))
 -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도시계획/행정학)
 - 권창환(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소순열(전북대학교 교수, 농업경제)
 - 윤정중(국토도시연구원, 도시계획)
 - 황정환(농촌진흥청 이적지원단)
 - 박현규(전주시의원)
 - 박종관(완주군의원)

갈등에서 소통으로

이동기 연구위원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가 급진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갈등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방사능폐기물처리 입지 갈등과 더불어 현재 증폭되고 있는 군산직도사격장, 35사단 이전 문제, 새만금 IC 명칭 문제, 익산 역세권 등 대형 공공사업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억조차 떠올리기 싫은 지난 2003년 부안사태로 인한 갈등의 아픔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부안사태로 구속된 43명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구멍가게를 하는 평범한 서민이었다. 이들에게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서든 말든 이미 중요하지 않다. 가슴 깊은 생채기로 인해 정부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잃어버리는 것, 그 허망함이야말로 바로 이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었다.

이처럼 공공 갈등은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도민 화합을 저해함으로써 전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범 도민 차원의 갈등 관리시스템이 없어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제 까지 우리는 갈등문제의 해결을 제도의 형성이나 법적인 장치를 통해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 설령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갈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갈등이 진정내지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공공사업 수행방식이나 갈등관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이력저력 버티다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형국에 더 가깝다.

그렇다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가? 한번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화되거나 이로 인해 고비용화 현상이 발생한다. 또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한 이해관계 갈등이 환경, 이념 등의 원인인 가치관 갈등이 결합한 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행정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리를 제공하고 해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협상 상황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 자신의 과거 경험에 너무 집착하거나 상대와 엇갈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인지하지 못할 때 협상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각자의 요구 사항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즉 이해관계자와 행정당국간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추진하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가장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 잇따른 사회적 논란의 해법을 찾느라 골몰하던 유럽 나라들은 최근 이른바 숙의민주주의를 정책결정에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숙의란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뜻한다. 현안마다 내용이 복잡해 쉽사리 옳고 그름을 따지기 힘든데다, 정부와 과학자는 대중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나온 해결책이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공론조

- > 주간회의
- > 연구과제
- > 동정
- > 연구원 소식
- > 게시판
- > 자유발언대

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이 그 방법들이다. 단순한 찬반양론에서 벗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춰진 갈등을 드러내고 침묵했던 목소리가 터져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해당사자들끼리 서로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깊이 토론해 합의의 단서를 찾는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나 갈등영향평가제 도입은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하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심각한 공공갈등을 겪은 전라북도는 소모적 논란을 생산적인 토론으로 바꾸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 형성 절차에 기초한 새로운 갈등 관리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이라는 원칙하에 전라북도와 도민이 함께 모여 갈등을 풀어나가는 제도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